

# 우승 칼 같았던 KIA, 고민은 도깨비 타선

타격, 침묵·폭발 거듭...수비는 결정적 순간 실수 잦아  
이번주 롯데·SK와 6연전...지나해 상대전적 우위  
나지완, 600득점 -2·타이거즈 홈런기록 -2 '대기록 관상'

## T 타이거즈 전망대

'도깨비팀' KIA 타이거즈가 '극과 극'의 상대를 만난다. KIA가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한다. 22일에는 SK 와이번스의 안방으로 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는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 지난 주 3승 3패의 전적을 냈다. 한화에 시즌 첫 위닝시리즈를 기록했지만, 두산과의 시즌 첫 만남에서는 1승

2패를 남겼다. 가장 확실한 선발 브룩스가 나온 17일 예상과 다른 싱거운 패배가 기록된 게 아쉽다. '예측불허'로 표현할 수 있는 KIA의 초반 행보다. 침묵과 폭발을 거듭하고 있는 타격과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수비 실수가 KIA의 약점이다. 그나마 앞선 한화와 3연전이 가장 긴장감 넘치는 시리즈였다. 12·13일 KIA는 연달아 1점을 지키며 승자가 됐다. 크게 이기거나, 대패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홀드'도 귀하다. KIA가 개막 후 12경기에서 수확한 홀드는 3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13일 한화전에서 이준

영-박준표-전상현이 나란히 기록한 홀드가 전부다. 타선 고민도 끝나지 않았다. KIA는 대대적인 엔트리 변동을 감행한 지난 16일 7타점의 터커, 4안타의 황윤호 등을 앞세워 두산에 13-4의 대승을 거뒀다. 고민 많던 3루에서 황윤호가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17일 모처럼 전날과 같은 라인업을 제출했다. 포수만 바꾼 고정 라인업이 등장하는 것 같았지만 전날과 달리 황윤호가 중요한 순간에 제 몫을 해주지 못했다. 매일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는 '도깨비팀'이 된 KIA는 화제의 두 팀을 나란히 만난다. 롯데는 최근 기세가 주춤했지만 개막 5연승을 발판 삼아 7승 4패로 두산, LG와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팀타율(0.289), 팀홈런(15개) 3위인 롯데는 실책은 가장 적은 4개만 기록하는 등 공수에서 견고해진 모습이다. FA로 안치홍을 영입하면서 타선도

더 묵직해졌다. 반면 SK는 11경기를 하면서 단 1승에 그치고 있다. SK는 지난 주말 안방에서 NC에 스윙패를 당하며 9연패에 빠졌다. 팀타율은 0.230으로 전체 9위, 득점권 타율은 0.194로 최하위다. 무더진 창에 방패도 허술해졌다. 불펜진 평균자책점 역시 8.03으로 최하위다. 뒷심 부족에 SK는 올 시즌 6차례 역전패를 당하며 힘겨운 봄을 보내고 있다. 전력 안정화라는 숙제를 안은 KIA가 초반 다른 질주를 하는 두 팀을 상대로 올 시즌에도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KIA는 지난해 롯데와 승부에서 9승 7패로 앞섰다. SK에도 8승 1무 7패로 우위를 점했다. 지난 시즌 SK전 우세를 기록한 팀은 '디펜딩 챔피언' 두산(9승7패)과 KIA 두 팀밖에 없다. 롯데전은 '적'이던 안치홍과의 첫 만남으로도 눈

길을 끈다. KIA는 지난해 FA시장에서 전략 부재 속 고압적인 협상 태도로 확실한 타자이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안치홍을 놓쳤다. 롯데에 강했던 안치홍이 롯데 유니폼을 입고 처음 챔피언스필드를 찾는 만큼 주중 3연전에는 많은 이들이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나지완의 타석도 관심사다. 나지완은 지난 16일 두산 이용찬을 상대로 시즌 2번째이자, 통산 206번째 홈런을 장식했다. 이와 함께 김성만이 가지고 있는 역대 순수 타이거즈 홈런 기록(207개) 경신을 앞에 두고 있다. 나지완은 통산 72번째 600득점에도 2점만 남겨두고 있다. 나지완이 승리를 부르는 '한방'으로 타이거즈 홈런 역사를 새로 쓰고 600득점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1부리그 적응 만만찮네



광주FC의 펠리페(가운데)가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2020 K리그1 2라운드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개막 후 2연패...무딘 공격력으로 득점기회 못얻어  
전력 재정비...23일 상무 상대 시즌 첫 골·첫 승 도전

발 묶인 광주FC가 2연패를 기록했다. 광주가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FC서울과 2라운드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성남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 침묵이 이어지면서 광주는 K리그1 복귀전 첫승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이번에도 이렇다 할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앞선 성남전에서 'K리그1 득점왕' 펠리페,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를 전면에 내세웠던 광주는 이날 6개의 슈팅을 날리는 데 그쳤다. 상대 골문으로 향한 유효슈팅은 2개에 불과했다. 펠리페 마르코 조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던 광주 박진섭 감독은 서울전에서는 지난 시

즌 감쪽 활약을 선보였던 '젊은피' 김주공을 펠리페와 함께 전면에 포진시켰다. 하지만 서울전 양상도 비슷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왼쪽 측면이 풀리면서 아드리야노에게 첫 슈팅을 허용하는 등 서울이 17차례나 슈팅을 날렸고, 이 중 6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 반면 광주는 5개의 슈팅과 유효슈팅 하나만을 남겼다. 이번에도 펠리페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후반 17분 모처럼 펠리페가 큰 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펠리페의 헤더가 골대를 비껴갔다. 광주 수비진은 앞선 성남전과 달리 초반 공세를 잘 버티며 서울을 압박했지만 후반 19분 아쉽게 실점이 기록됐다.

한승규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공을 주고받은 서울 한찬희가 페널티아크 중앙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8분 수비수 홍정호가 전진해 중거리 슈팅까지 선보였지만, 광주는 시즌 첫 득점에 실패하면서 두 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전날날' 공세가 연달아 광주를 울렸다. 지난 시즌 전남 코치로 광주를 지켜왔던 성남FC 김남일 감독이 시즌 개막전에서 '맞춤형 공략'으로 광주에 첫 패배를 안겨줬고, 광양제철고 출신으로 지난 시즌까지 전남에서 활약했던 한찬희는 서울전 결승골을 책임졌다. 특히 한찬희는 서울 데뷔전에서 승점 3점을 책임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화려 점화에 실패한 광주는 오는 23일 상주시민운동장으로 가 상주 상무를 상대로 시즌 첫 골과 첫 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매길로이 샷 한방에 13억원

존슨과 나선 2대2 자선 스킨스 게임, 연장전 17번홀서 승부 마침표

세계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웨지샷 한방에 110만 달러를 따내며 2대2 스킨스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 더스틴 존슨(미국)과 짝을 이룬 매길로이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노비치의 세미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빙 릴리프'에서 185만 달러를 합작해 115만 달러에 그친 리키 파올라(미국)와 매슈 울프(미국)를 따돌렸다. 총상금 300만달러를 놓고 2대2 스킨스 경기로 펼쳐진 대회에서 매길로이와 존슨은 미국 간호사 재단, 파올라와 울프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이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캐디를 지원할 성금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선수들의 상금뿐 아니라 팬들의 모금까지 50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이 의료 지원금으로 조성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가 아닌 이벤트 대회지만,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이후 두 달 만에 정상급 선수들이 대결하는 모습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네명의 선수는 정규 대회 때는 허용되지 않는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방송용 마이크까지 착용해 선수끼리 경기 중에 나누는 대화도 생생하게 전파를 탔다. 갤러리가 허용되지 않은 대신 채택한 팬 서비스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캐디를 대동하지 않고 선수가 직접 가방을 메고 코스를 걸었고, 그린에서도 불을 스스로 닦았다. 대회에 앞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랭킹 1위 매길로이와 세계랭킹 5위인 존슨이 파올라와 울프를 압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막상 투쟁을 열자 날카로운 아이언샷과 퍼트 감각을 앞세운 파올라의 독무대였다. 2번홀(파5)에서 절묘한 벙커샷에 이은 짧은 거리 버디를 잡아낸 존슨에게 먼저 5만 달러짜리 스킨 3개를 한꺼번에 내줬지만, 파올라는 4번 홀



(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핀 1m 옆에 떨구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6번 홀(파4)에서도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1.2m 버디를 뽑아내 두 번째 스킨을 따낸 파올라는 7번 홀(파4)에서는 매길로이의 3m 버디에 비슷한 거리의 버디로 응수했다. 9번 홀(파5)에서는 2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스킨 3개를 챙겼다. 7번 홀부터 스킨 상금이 10만 달러로 올라 한꺼번에 30만 달러를 추가한 파올라와 울프는 상금에서 85만 달러-75만 달러로 역전했다. 파올라는 11, 12번 홀(파) 연속 버디로 누적 상금을 115만 달러로 늘렸고,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가장 뛰어난 경기 감각을 뽐냈다. 그러나 매길로이는 딱 한 차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3번 홀부터 18번 홀(파4)까지 6개 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해 110만 달러를 걸고 17번 홀(파3·120야드)에서 니어핀 방식으로 치러진 연장전에서 매길로이는 홀 열 3m 거리에 불을 안착시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 조던 농구화 한 켤레에 7억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운동화 소더비 경매 56만 달러에 낙찰

소더비 경매에 나온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7·미국)의 농구화 한 켤레가 한국 돈 7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됐다. 소더비가 9~17일(현지시간) 진행된 온라인 경매 결과 1985년 제작돼 조던이 착용했던 나이키 농구화 한 켤레가 56만 달러(약 6억9000만원)에 낙찰됐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 나왔던 나이키 최초의 러닝화 '문 슈(Moon Shoe)'가 기록한 43만7500달러를 넘어선 역대 운동화 경매 최고가다. 빨간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나이키 로고가 검은색으로 더해진 이 '에어 조던 1' 농구화에는 조던의 사인도 들어가 있다. 조던의 발에 맞춤 제작돼 왼쪽은 13, 오른쪽은 13.5 사이즈인 '짝짝'이다. 이번 경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프로농구(NBA) 시즌



이 중단된 사이 시카고 불스와 조던을 주제로 한 TV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조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렸다. 조던의 인기 부활 속에 낙찰 예상가는 10만~15만 달러로 형성됐는데, 실제 낙찰가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소더비의 전자상거래 개발 담당 임원은 "경매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봤다. 마지막 1시간에만 가치가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